



트렌드 부상한 '감독판·리마스터링'

(옛 매체 화질·음질 보정)

'영화·드라마 재관람'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처음 관람할 때 놓쳤던 장면들을 곱씹어 볼 수 있고, 복잡한 서사나 복선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다시 보기'가 편리해졌다는 점도 반복 관람의 유행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재관람 열풍과 맞물려 최근에는 검열 등의 이유로 편집했던 장면을 복원하거나 재배치하는 '감독판'·'무삭제판', 수십 년 전 개봉작을 화질이나 음향을 발전시켜 다시 선보이는 '리마스터링' 버전 등이 유행 중이다.

◇창작자 의도와 예술성 고스란히 '감독판'·'무삭제판'
최근 12·12사태를 모티브로 극장가를 달궜던 영화 '서울의 봄 감독판' 개봉이 낱알로 드러났다. 원작에서 볼 수 없던 미공개 씬과 스틸컷 등을 발견한 누리꾼들이 '원작에 없던 미포함분을 포함한 새로운 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했던 것이다. '감독판'·'무삭제판'은 러닝타임이 원작보다 10~30분 정도 긴 경우가 많다. 원작의 의도를 '편집' 없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티빙 등 OTT플랫폼에서 상영 중인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 '미드소마'는 감독판의 좋은 예다. 최근 재개봉한 '미드소마 감독판'은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펼쳐지는 제의적 행위에 얽힌 미스터리와 공포를 다뤘다. 작중 마을 사람들이 여행객들의 시체를 수레에 싣고 움막집으로 향하는 모습, 적나라한 성적 표현과 잔인한 표현 등은 원작에 없던 장면이다.

연산군의 흥청망청을 그린 영화 '간신'도 감독판으로 OTT에서 다시 얼굴을 비쳤다. 본편에서

영화·드라마 재관람 인기
처음 관람 때 놓쳤던 장면 곱씹고
복잡한 서사·복선 이해에 도움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 확장
다시보기 편리해져 유행 요인
"성공작에 의존" 부정적 견해도

볼 수 없던 20분 분량의 12가지 씬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물론 장녹수, 설종매 등 주요 인물들의 드라마도 추가됐다. 본편과 차별점 있는 엔딩은 물론 다양한 미장센이 도입돼 역사의 새로운 이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올리 '무삭제판'도 19급 영화·드라마 등에서 흐름을 타고 있다. 풀 버전을 보여주는 무삭제판·감독판은 주로 영화제만의 특색으로 꼽혀왔으나, 최근에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일본의 명작 '베를로알' 등 오래된 작품들도 OTT에서 무삭제판으로 상영 중이다. 익숙한 '괴물', '타인은 지옥이다' 등 흥행 가도를 달궜던 작품들은 물론, '강남1970', '손 the guest' 등 다양한 작품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매운맛 연기와 서사로 시청률 28.4%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도 왓차플레이, 티빙 등 OTT 플랫폼에서 무삭제판 상영 중이다. 원작과 비교해 볼 때 베드신이나 폭력의 수위가 더 높다. 이 밖에도 스페인 드라마 '스킵', 영국의 액션 드라마 '월요일이 사라졌다' 등 국가와 장르를 막론하고 유행 중이다.

◇원작 이상의 생생한 감동... '리마스터링'
얼마 전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OTT 플랫폼 등에서 선보인 '만주 리마스터링'이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4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해 화질과 음향을 보완, 실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13년 전 스크린에 올랐던 원작의 화질과 음향 등을 보완해 2011년의 감동을 다시 소환했다.

90년대 흥공 감성을 그대로 담은 '화양연화'도 최근 전국 메가박스에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했다. 4K 화질로 감상하는 작품은 원작 이상의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이 이어진다. 또 1998년 첫선을 보인 왕 감독의 '해피 투게더 리마스터링' 또한 평점 8.91(네이버 관람평)을 기록하며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왕 감독의 '중경삼림 리마스터링'은 기대를 잔뜩 받는 작품이다. 개봉 3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극장가를 수놓을 예정이며 현재 티빙, 왓차 등 OTT 플랫폼에서 상영 중이다.

이외에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마스터피스로 꼽히는 2001년 개봉작 '메멘토'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OTT에서 즐길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이 같은 흐름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데, 고해상도 파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검열이 줄어드는 등 새로운 문화기술적 맥락과 궤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화 산업이 소위 헐리우드, 마블류 작품 등에 장악당하며 고갈됐기에, 기존에 흥행과 비평에서 성공한 작품을 다른 버전으로 내놓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미 흥행 보증수표를 받은 작품으로 관객을 '눈가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시민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실현

문화재단, 예술시민배움터·창의예술학교 등 5개 사업 공모



지난해 진행된 '예술시민배움터' 진행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예술시민배움터지원사업', '창의예술학교운영사업',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올해 진행하는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모두 5개 분야다. (8억 5500만원 규모, 45건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먼저 '예술시민배움터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와 '토요문화학교-주말예술배움터' 사업을 통합해 운영한다.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세대통합으로 나뉜다.

'창의예술학교'는 자율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을 경력 5년 이상 기관 및 단체로 상향 조정했으며 5개 내외의 단체 및 기관을 선정한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생애전환기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생

애전환기는 보호종료 청소년, 취업 및 이직준비 청년, 경력 보유·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신중년 등이 해당한다)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예술'과 '놀이'에 중점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보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운영만 진행하며 기존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은 문화시설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 국·공립 교육시설이 우선 선발 대상이며, 이밖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가능한 공공적 문화시설 등이 해당된다.

참가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26일부터 3월 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gjarte@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2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한국학 강좌·학술대회 지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시·도민 대상 다음달 13일까지 공모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사진)은 호남 권역의 인문학 전공 학생과 시·도민 대상으로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은 호남한국학 관련 대학 및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사)교육문화네트워크 동행 등 강좌 12개 단체, 한국시가문화학회 등 학술대회 14개 단체를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사업 기간 완료는 10월 31일이다.

홍영기 진흥원 원장은 "진흥원은 호남한국학 강



좌 및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전통과 미래를 이어뿐 아니라 많은 시·도민과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남한국학 강좌와 학술대회가 진흥원의 실질적인 중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